

사회적 배제가 전위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및 사회적지지의 조건부 직접효과*

노 윤 재¹⁾

윤 상 연[†]

본 연구는 묻지마 범죄가 주로 대인관계 문제에서 비롯되었고 제3의 무고한 대상에 대한 보복행위라는 특징에 착안하여, 사회적 배제 경험과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를 확인하고 두 변인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등 관련 요인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성인 남성 353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 경험이 전위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조절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사회적 배제는 전위된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스트레스는 사회적 배제와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사회적지지가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은 검증되지 않았으나, 매개모형에서 사회적지지의 조건부 직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를 매개한 간접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사회적 배제와 전위된 공격성 간의 직접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배제가 전위된 공격성을 예측하는 것은 사회적 지지 평균집단(mean)과 고집단(M+1SD)에서만 유의했으며 고집단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서 오히려 전위된 공격성을 스트레스 조절 전략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선행 연구들과는 상이한 결과다. 사회적지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사회적 배제 경험에도 불구하고 전위된 공격성의 사용빈도가 낮다는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논의에서는 이러한 결과의 사회적 의미를 해석하였으며, 사회적 배제와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를 구체화할 추가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사회적 배제, 전위된 공격성,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조건부 직접효과

* 본 논문은 노윤재(2022)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1)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 교신저자 : 윤상연,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사회과학대학 330호

E-mail : yoonsangyeon@gnu.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울지방경찰청 행동과학팀의 ‘이상동기 범죄자의 성향 및 특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문지마’ 범죄 20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유형의 범죄자들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들 중 ‘친한 친구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으며 행동과 사고에서 사회성이 결여된 집단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망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비슷한 시기 대검찰청의 분석 결과에서도 분석 대상 163건 중 현실불만의 유형은 전체의 24%를 차지하였으며, 이들 범죄의 주요 원인은 주로 가족들의 외면, 갈등, 직장에서의 괴롭힘, 무시 그리고 피해의식 등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사회적 부적응과 대인관계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대검찰청, 2015).

문지마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했다고 느끼지만, 범죄자들의 내재된 범행 동기를 확인하거나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또한, 이들 스스로도 명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우월한 지위의 상대방에게 보복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상대방에게 보복행위를 하게 된다(김진혁, 2012). 이러한 공격행위는 분노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게 전이하는 ‘전위된 공격성’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행동 방식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인 관심이 요구된다.

사회적 배제

사람들은 삶을 영위하며 직장이나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런 관계 형성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한편, 동시에 많은 사람이 대인관계의 어려움 또한 경험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욕구 중 하나이다. 사회적 소속 욕구가 위협되거나 좌절되면 인간은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고 한다(Baumeister & Leary, 1995).

사회적 배제를 겪을 경우 불안, 우울증, 외로움, 고립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며(Baumeister & Tice, 1990), 이는 소속감(belongingness), 자존감(self-esteem), 통제감(control), 그리고 존재감(meaningful existence)과 같은 인간의 네 가지 기본적인 욕구마저 위협한다(Williams, 2001; Zadro, Williams, & Richardson, 2004). Williams(2007)는 소속감과 자존감을 관계의 욕구로, 통제감과 존재감을 효능감 욕구로 분류하였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욕구를 위협받은 상황에서 그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이병관, 윤태웅, 노환호, 임혜빈, 2019; Gilman, Adams, Carter-Sowell, Dewall, & Carboni, 2013). 가령, 관계의 욕구가 위협받았을 경우 사람들은 친사회적인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반면, 효능감 욕구가 위협받았을 경우 사람들은 통제력을 행사하거나 도발적인 행동을 보이고 주목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배제 경험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무시 또는 거절 받은 경험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사람의 기본적인 동기인 사회적 관계 동기를 위협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무시되거나 배제되는 경험을 하는데(Hartgerink, Wicherts, Van

Beest, & Williams, 2015), 이러한 경험은 범죄, 고용 문제, 사회적 불안정을 유발하는 빈곤, 불평등한 자원 배분, 관계 단절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Byrne, 1999). 또한, 사회적 배제 경험은 개인에게 굴욕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하고, 정서적 공감 능력을 결여시키기도 한다(이수정, 이현성, 이정현, 2013).

인간은 사회적 배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른 이들로부터의 거절과 배제 경험에 근본적인 공포를 느낀다(Ayduk, Gyurak, & Luerssen, 2008; Gardner, Baumeister, & Leary, 1995; Pickett, Gardner, & Knowles, 2004). 때문에 인간은 다시 집단에 소속되기 위하여 더욱 긍정적인 태도로 친사회적 행동에 동기화되기도 하지만(Maner, Dewart, Baumeister, & Schaller, 2007),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반사회적 행동으로 관계 형성을 더욱 어렵게 하기도 한다(Bushman, Baumeister, & Phillips, 2001; Maner et al., 2007). 사람들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경우 반사회적 행동 중 하나인 공격성을 표출하여 통제감과 사회적 영향력의 회복 및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한다(Denson, Capper, Oaten, Friese, & Schofield, 2011).

전위된 공격성

사회적 배제 경험은 종종 공격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데 직접 공격성은 물론, 무고한 사람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전위된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도 나타난다(Dewall & Richman, 2011). 공격성은 어떤 대상에게 공격 행동이 표출되는가에 따라 직접 공격성과 간접 공격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위된 공격성은 간접 공격성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전위된 공격성은 공격성을 유발한 대상에

향한 보복이 불가능할 때 그 대상에게는 공격성을 억제했다가 후에 다른 무고한 대상에게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Denson, Miller, & Pedersen, 2006; Dollard, Doob, Miller, Mowrer, & Sears, 1939).

심리학에서 전위(displacement)는 방어기제의 하나로, 실제 대상으로부터 감정을 분리하여 상대적으로 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인물이나 대상에게 감정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며 (Vaillant, 1986), 흔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눈 흘긴다.'라는 국내 속담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이러한 전위는 행동화 방식의 하나로, 갈등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경험은 피할 수 있게 해주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어렵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박경화, 1991).

전위된 공격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이 있다. 첫째, Freud의 추동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에 의한 공격적 추동이 위협 수위에 도달하기 전에 표출되어야 하는 공격적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공격적 추동은 추동을 유발한 대상에게 직접 표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추동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동과 무관한 제3의 대상을 향해 공격성을 표출하는데, 이를 전위된 공격성으로 설명 가능하다(Denson, 2008).

둘째, Dollard 등(1939)의 좌절-공격성 가설(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에 의하면 공격성은 항상 좌절의 결과이며, 좌절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좌절 경험으로 인해 발생한 분노 감정은 공격적 반응으로 표출되어야 하나 좌절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아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자연스러운 반응(분노 표출)의 실패는 후에 개인에게 부가적인 좌절이나 분노를 경험하게 하며 이

는 전위된 공격성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Miller, 1941).

셋째, Berkowitz(1989)의 인지-신연합 이론 (Cognitive-Neoassociationistic Theory: CNA)에 의하면 인간은 혐오적인 사건을 경험한 경우 심리적 불안정으로 인해 그와 연합된 분노, 공포와 같은 다양한 감정을 자동으로 겪게 되고, 이로 인해 공격성이 발현될 수 있다. 즉,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들은 부정적 감정을 발생시키고, 이것은 공격성과 관련된 사고, 기억, 행동 등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때 분노 유발자가 부재하거나, 혹은 분노 유발자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공격성은 억제된다. 그러나 이 억제는 후에 반동 형성과 반추를 통해 오히려 분노감을 키우며, 결과적으로 공격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Miller, Pedersen, Earlywine, & Pollock, 2003).

인지-신연합 이론은 정서와 인지의 순차적 과정으로 전위된 공격성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혐오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인 정서가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을 촉발한다. 한 가지는 공격성과 관련된 '투쟁(fight)' 경향이고, 다른 한 가지는 두려움과 관련된 '도주(flight)' 경향이다. 도주 경향은 부정적인 정서를 일단 억제하고 회피한다는 측면에서 전위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Denson et al., 2006). 두 번째 단계인 상황에 대한 인지가 영향을 받고,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평가나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공격성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Pedersen, 2006). 이러한 전위 공격성은 분노를 유발하는 일차적인 사건에 이어 분노를 재점화하는 촉발 자극이 생겼을 때 자극을 제공한 제3의 대상에게 공격을 가하는 촉발된 전위 공격성(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으로 불리기도 한다(Pedersen, Bushman,

Vazquez, & Miller, 2008).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최초 사건 이후 20분 이상이 지나면 반추를 통해 각성이 고조되며 촉발사건에 의해 전위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다 (Miller et al., 2003).

Miller 등(2003)은 기질적 공격성과 반추 경향을 전위된 공격성과 관련된 성격적 특성으로 보았으며 기질적으로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은 직접적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과는 달리 분노가 촉발되는 상황에서 분노를 표출하기보다 원인 제공자에 대한 분노와 공격성을 철회하는 특징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일치하여 Denson 등(2006)의 연구에서도 전위 공격성은 행동적 억제 성향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회피적인 대처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은 좌절 상황에서 분노를 억제하고 반추하는 경향을 보였다(Bushman, Bonacci, Pedersen, Vasquez, & Miller, 2005).

이처럼 전위 공격성을 보이기 쉬운 개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특성 전위 공격성(trait displaced aggression)이라고 한다(Denson et al., 2006). Denson 등은 DAQ(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를 개발하여 특성 전위 공격성의 대표적인 특징인 분노 반추, 행동적 전위 공격성, 보복계획 세 가지를 측정하였다. 이는 인지-신연합 이론에서 제안한 공격과 관련한 인지, 감정, 각성에 대응하는 각각의 형태이다.

사회적 배제와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의 역할

사회적 배제 경험은 공격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Ayduk, Gyurak, & Luerssen, 2008; Baumeister et al., 1995). 다수의 연구에서 사회

적 배제를 경험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핫소스를 더 많이 나눠준다던가,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던가 혹은 낮은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소음이 녹음된 테이프를 듣게 하는 등 공격성 측정을 위해 조작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Dewall, Twenge, Gitter, & Baumeister, 2009; Dewall, Twenge, Bushman, & Williams, 2010; Twenge, Baumeister, Tice, & Stucke, 2001).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배제의 원인이 되는 대상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공격성 역시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Dewall, MacDonald, Webster, Masten, Baumeister, & Powell, 2010). 국내의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거절을 경험한 아동 및 청소년이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며, 공격적인 행동과 비판을 가했다(임광현, 신나영, 성현준, 신진수, 이수정, 2020).

그러나 사회적 배제가 항상 즉각적인 공격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변인의 개입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고려할 변인은 스트레스이다. 사회적 배제 경험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개인의 복지에 큰 해를 가한다(Nezlek, Wesselmann, Wheeler, & Williams, 2012). 스트레스(stress)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한계를 초과하여 자신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환경과 개인 간의 특정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Lazarus & Folkman, 1984), 스트레스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 분노감, 적대감,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서승연, 이영호, 2007).

다만, 스트레스는 같은 상황, 같은 사건이라도 개인의 경험, 가치관, 관심도에 따라 지

각의 정도가 다른데, 객관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할만한 상황 자체, 그리고 개인이 그 상황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으로 구분된다(이종하 등, 2012). 스트레스의 주관적인 면을 특히 지각된 스트레스(perceived stress)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주관적 반응을 의미하며, 스스로의 조절 가능성이 중요한 요인이다(Cohen & Heberman, 1983; Lazarus, Folkman, 1984). 가령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주변인으로부터 배제되어 부정적인 반응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사회적 배제 경험으로 초래되는 기본적 동기인 소속에 대한 욕구의 위협(Baumeister & Leary, 1995), 그리고 소속 욕구의 위협으로 인한 신체적 건강과 적응, 심리적 안녕 전반에 대한 부정적 영향(Baumeister, Brewer, Tice, & Twenge, 2007; Gardner, Pickett, & Brewer, 2000; Zadro et al., 2004)은 개인에게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이다. 또한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 지목되는 왜곡, 분노 표출 또는 감정조절 능력의 결여, 사회에 대한 반감과 공격성(윤정숙, 김민지, 2013; Baumeister, & Leary, 1995; Cohen & Hoberman, 1983; Gardner et al., 2000) 역시 스트레스로 유발되는 일반적인 증상들과 유사성을 보인다.

전위된 공격성 역시 스트레스와 상관이 있음이 확인된다. 전위된 공격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높은 스트레스가 관찰되었고(Mattews, 2016), 심혈관, 호흡 및 위장 등에서 건강상의 문제 등이 나타났는데(Denson et al., 2006), 이는 모두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높은 질환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전위된 공격성 수준을 독립

변인으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연구인 만큼,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본 연구는 아니지만 스트레스가 전위된 공격성을 유발하는 한 가지 요인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사회적 배제 경험이 전위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두 변인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배제와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에서 고려할 두 번째 변인은 사회적지지이다. 사회적 배제와 전위된 공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사회적지지의 효과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지지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는데,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도와주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Cohen & Heberman, 1983; Cohen & Wills, 1985; Sarason, Levine, & Basham, 1983).

또한 정신과적 증상을 예측하고 나아가 정신질환 노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처 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건강 분야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아 왔다.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i, 2021). 즉, 사회적지지가 높은 집단에서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사회적지지가 낮은 집단에서는 스트레스와 우울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는 몽골 이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나란볼락, 유금란, 2021). 즉, 몽골이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상태에서는 사회적지지 수준에 따른 우울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는 사회적지지가 부족한 경우 스트레스가 우울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적지지와 공격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부모, 교사, 가까운 친구로부터 지각된 지지가 높을수록 담임이 보고한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이 적었으며, 또래지지는 공격 행동을 유발하는 폭력피해의 효과를 완충했다(Benhorin & McMahon, 2008). 부모, 친구 및 교사의 사회적지지가 높은 수준으로 제공되는 경우 또래로부터 받은 인종 차별이 청소년의 관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했다(Wright & Wachs, 2019). 사회적지지는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도 완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amama & Ronen-Shenhav, 2012).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사회적 배제 경험은 개인의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여 삶의 질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임에 반해 사회적지지는 삶 전반에 걸쳐 개인의 적응을 돕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어 사회적지지가 사회적 배제의 효과, 특히 사회적 배제로 인해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효과를 조절할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가 완화되는지 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40대 남성에게서 사회적 배제 경험이 전위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그림 1 참조). 이를 위하여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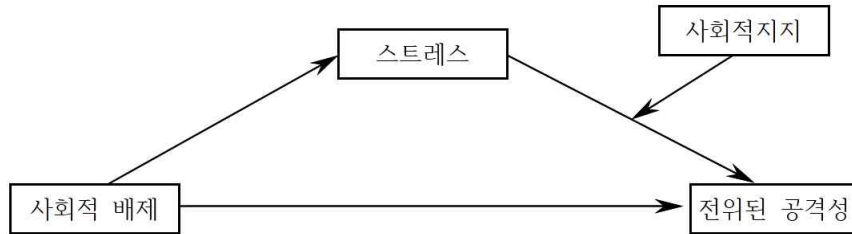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가설 1. 사회적 배제는 전위된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스트레스는 사회적 배제와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 사회적 배제와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조절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대상선정 근거

본 연구는 전문리서치회사에 비용을 지불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됐으며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통해 불성실한 응답자, 끝까지 조사를 하지 않은 응답자, 너무 빠른 응답자 등은 전부 제외하고 제공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최종 선정된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20~40대(만 19세~49세) 일반 성인 남성 353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를 20~40대의 남성으로 한정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문지마 범죄자의 범죄 특성과 전위된 공격성과의 특성이 유사성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였다. 문지마 범죄자들의 인지적 특성 중 하나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망상적

인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고, 실제 범죄자들의 그러한 특성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20~40대 남성’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했다(고선영, 2012). 또 2015년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문지마 범죄자의 연령대가 20대에서 40대에 밀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범죄자가 남성이라는 점에 착안하였다. 예를 들어, 윤정숙, 박지선, 안성훈, 김민정(2014)의 연구에서는 가해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남성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빈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 도구

사회적 배제 경험(social exclusion)

사회적 배제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Gilman 등(2013)이 개발한 원척도를 기반으로 이병관 등(2019)이 한국형으로 다시 개발한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8문항이며, 무시 경험 4문항(예, 다른 사람들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과 거절 경험 4문항(예,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자신들의 모임이나 조직에 초대한다 -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배제 경험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N=353)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353	100.0
나이	20대(19세~29세)	112	31.7
	30대	111	31.4
	40대	130	36.8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미만	1	0.3
	고등학교 졸업	71	20.1
	2년제 대학교 졸업	55	15.6
	4년제 대학교 졸업	190	53.8
	대학원 졸업 이상	36	10.2
경제수준	매우 어려운 편이다	9	2.6
	비교적 어려운 편이다	62	17.6
	보통이다	249	70.5
	비교적 부유한 편이다	27	7.7
	매우 부유한 편이다	6	1.7
직업	법률관련	7	2.0
	사무 및 행정직원	69	19.6
	의료 및 과학관련	21	6.0
	건축 및 설치관련	22	6.2
	생산관련	25	7.1
	영업 및 관련직종	26	7.4
	학생	75	21.3
	기타	108	30.6
지역	서울특별시	105	29.8
	부산광역시	27	7.7
	인천광역시	19	5.4
	대구광역시	20	5.7
	광주광역시	14	4.0
	대전광역시	9	2.6
	울산광역시	8	2.3
	세종특별자치시	2	0.6
	제주도	4	1.1
	경기도	75	21.3
	강원도	2	0.6
	충청도	32	9.1
	경상도	22	6.2
전라도	14	4.0	

주. 1 법률관련=변호사, 판사, 법원 속기사, 법률 사무원, 법무사 등 2 사무 및 행정직원=일반회사 사무직, 접수원, 비서, 행정 보조 등 3 의료 및 과학관련=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수의사보조, 의료기록 사무원, 생명과학, 물리, 사회과학 관련 직종 4 건축 및 설치관련=건축가, 건설 엔지니어, 건설현장 소장, 항공 정비사, 차량 정비사 등 5 생산관련=공장 운영자, 목수, 포장 전문가, 전자 기계 조립 등 6 영업 및 관련 직종=사업 개발 전문가, 판매자, 마케팅 책임자, 제품 관리자 등 7 학생=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원생 등 8 기타=예술가, 운동선수, 운전기사, 교수, 강사, 농부, 어부, 회계사, 파일럿 등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척도 .93, 무시 .97, 거절 .90이었다.

전위된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

전위된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Denson 등(2006)이 개발한 DAQ(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를 이하나(2009)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7문항이며, 분노반추 10문항(예, 나는 화가 나면 한동안 그 생각에 빠져 있곤 한다), 전위공격성 9문항(예, 나는 기분이 나쁘면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다), 보복계획 8문항(예, 누군가가 내 비위를 건드리면 언제고 반드시 보복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위된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척도 .96, 분노반추 .96, 전위공격성 .97, 보복계획 .94이었다.

지각된 스트레스(perceived stress)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Cohen 등(1983)이 개발한 스트레스 지각척도를 이종하 등(2012)이 개정한 한글판 스트레스 지각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이며, 스트레스 관련 요인 6문항(예, 지난 한 달 동안, 예상치 못했던 일 때문에 당황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스트레스 조절 관련 요인 4문항(예, 지난 한 달 동안, 일상생활의 짜증을 얼마나 자주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지난 1개월 간의 경험을 기준으로 5점 Likert 척도(1=전혀 없었다; 5=매우 자주 있었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척도 .95, 스트레스 관련 요인 .93, 스트레스 조절 관련 요인 .86이었다.

지각된 사회적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Zimet 등(1988)이 개발한 다차원 지각된 사회적지지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신준섭과 이영분(1999)이 번안한 지각된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이며, 가족의 지지 4문항(예, 가족으로부터 내게 필요한 정서적인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 친구의 지지 4문항(예, 내 친구들은 정말로 나를 도우려고 한다), 중요한 타인의 지지 4문항(예, 나를 위로해줄 사람(가족이나 친구 제외)이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척도 .90, 가족의 지지 .95, 친구의 지지 .96 중요한 타인의 지지 .94이었다.

분석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28.0과 SPSS PROCESS Macro v4.1(Hayes, 201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가설은 사회적 배제와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사회적지지가 조절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가 스트레스를 통해 전위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조절할 것으로 보고 매개모형 중 '사회적 배제→스트레스' 또는 '스트레스→전위된 공격성'의 경로를 직접 조절

하는 PROCSES Macro의 model 7과 14 이외에도 model 8, 58, 59를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대안적으로 매개모형 중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조건부 직접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Preacher 등이 제안한 순서대로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건부 직접효과 순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먼저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여 사회적 배제가 전위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샘플수를 5,000개(신뢰구간 95% 수준으로 지정)로 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model 1을 이용하여 사회적 배제와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했다.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였으며, 샘플수는 5,000개로 지정(신뢰구간 95%로 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model 5를 이용하여 사회적 배제와 전위된 공

격성의 관계를 스트레스가 매개하는 모형에서 사회적지지의 조건부 직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했고, 매개효과와 조절효과에서와 동일한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예비분석

본 분석에 앞서 연구참여자들의 각 변인간 상관관계와 기술통계치인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았으며 결과값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배제 경험은 전위된 공격성($r = .24, p < .001$), 스트레스($r = .40,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지지($r = -.54, p < .001$)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전위된 공격성은 스트레스($r = .30, p < .001$), 사회적지지($r = .12, p < .05$)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는 사회적지지($r = -.28, p < .001$)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8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만한

표 2. 주요 변인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배제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전위된 공격성
사회적 배제	-			
스트레스	.40***	-		
사회적지지	-.54***	-.28***	-	
전위된 공격성	.24***	.30***	.12*	-
M	2.51	2.94	3.57	2.50
SD	.91	.80	.99	.86

*** $p < .001$, * $p < .05$

변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인 사회적 배제와 조절변인인 사회적지지는 부적 관련성이 높아 조절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적절한 관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두 변인이 개념적으로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 경험자들에게 사회적지지가 보호요인으로 적응적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래 계획대로 조절효과를 분석 내용에 포함하였다.

매개효과 분석

사회적 배제가 전위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 = 68.49, p < .001$), 사회적 배제 경험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영

향을 미치는 회귀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 = 20.59, p < .001$). 사회적 배제가 전위된 공격성에 미치는 총효과는 .27이며, 그 중 직접효과(사회적배제→전위된공격성)는 .16, 간접효과(사회적배제→스트레스→전위된공격성)는 .11로 사회적 배제 경험과 전위된 공격성 사이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또한, 사회적 배제 경험은 전위된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어, 사회적 배제 경험과 전위된 공격성 사이에서 스트레스는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절효과 분석

사회적 배제 경험과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독립변인 사회적 배제 경험은 종속변인 전위된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beta = .42, p < .001$), 조절변인 사회적지지도 전위된 공

표 3.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분석 및 검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i>B</i>	<i>SE</i>	β	<i>t</i>	<i>p</i>	<i>F</i>	<i>R(R²)</i>
전위된 공격성	스트레스	.27	.03	.40	8.28***	.000	68.49***	.40(.16)
	사회적 배제	.16	.06	.14	2.50**	.013	20.59***	.32(.11)
	사회적 배제 → 스트레스	.42	.09	.24	4.40***	.000		
	구분				Effect	SE	95% CI	
							lower	upper
	총효과				.27	.06	.16	.39
	직접효과				.16	.06	.03	.29
사회적 배제	→	공격성						
	간접효과				.11	.03	.06	.18
사회적 배제	→	스트레스	→	공격성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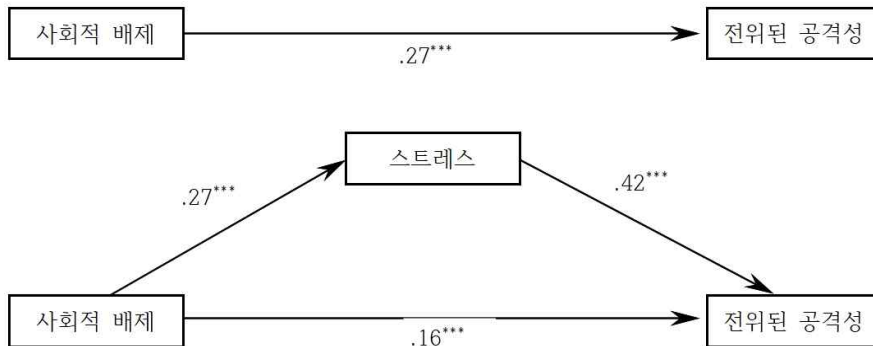


그림 2.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

*** $p < .001$, * $p < .05$

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 = .22, p < .001$). 상호작용항 사회적배제 \times 사회적지지 역시 전위된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beta = .20, p < .01$). 즉 사회적 배제가 전위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지지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상호작용항의 추가에 따른 R^2 의 변화량은 크지 않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여($\Delta R^2 = .02, p < .01$), 사회적 배제 경험과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배제 경험과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변수의 특정 값에서 사회적 배제 경험이 전위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의 조건부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배제 경험과 전위된 공격성 간의 단순 기울기는 사회적지지의 값이 $-.93(M-1SD)$ 부터 $.93(M+1SD)$ 의 범위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지지의 변수값에 따른 조절효과가 어느 영역에서 유의한가를 파악하기 위해 조절변수의 전 범위에 대한 조명등분석법(floodlight

analysis: Spiller, Fitzsimons, Lynch Jr, & McClelland, 2013)인 Johnson-Neyman 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배제 경험이 전위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지지의 표준값이 -1.02 보다 높은 영역에서 유의하였고, -1.02 보다 낮은 영역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회적지지는 값이 -1.02 보다 높은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경험이 전위된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이러한 영향이 유의한 비율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90.93%이었으며, 사회적지지가 -1.02 이하인 9.07%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사회적지지는 값이 -1.02 보다 높은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경험과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3과 같으며 유의한 상호작용 패턴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적지지를 각각 저집단($M-1SD$), 평균 집단(mean), 고집단 ($M+1SD$)으로 분류하여 회귀식을 산출해 단순 기울기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지지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배제 경험에 따른 전위된 공격성의 증가율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및 사회적지지 수준에 따른 사회적 배제 경험과 전위된 공격성 간 관계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변수	β	SE	t	P	95% CI	
					lower	upper
상수	2.56	.40	60.77	.000	2.48	2.61
사회적 배제	.42	.07	5.97	.000	.28	.56
사회적지지	.22	.05	4.50	.000	.13	.32
사회적 배제×사회적지지	.20	.67	2.92	.004	.06	.33

구분	Effect	SE	t	P	95% CI	
					lower	upper
M-1SD(-.93)	.24	.11	2.23	.027	.03	.45
M(.00)	.42	.07	5.97	.000	.28	.56
M+1SD(.93)	.61	.08	7.73	.000	.45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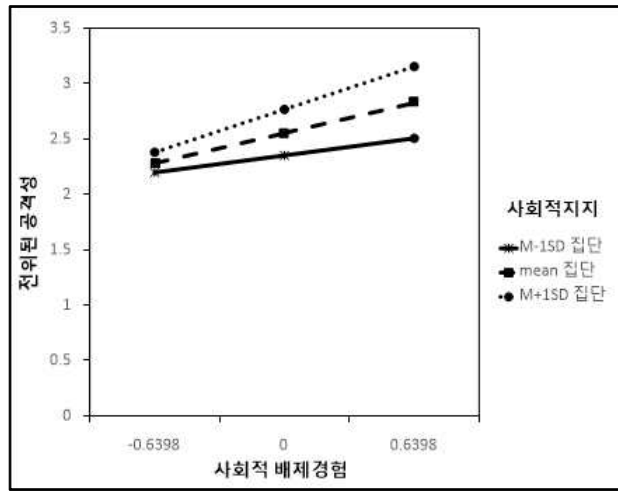


그림 3. 사회적 배제와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사회적지지의 조건부 직접 효과

사회적지지의 조건부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배제는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beta = .27, p < .001$)을 미쳤고, 스트레스는 전위된

공격성에 정적 영향($\beta = .46, p < .001$)을 미쳐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독립변인인 사회적 배제는 전위된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beta = .32, p < .001$)을 미쳤으며, 조절변인인 사회적지지도 전위된 공격성에 유의한 영

향($\beta = .24, p < .001$)을 미쳤다.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항은 전위된 공격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 = .19, p < .01$)을 미쳐 조건부 직접효과가 있었다. 즉 사회적 배제 경험은 스트레스를 경유하여 전위된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지지는 이러한 간접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회적 배제 경험과 전위된 공격성 간의 직접효과

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의 추가에 따른 R^2 의 변화량은 크지 않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여($\Delta R^2 = .02, p < .01$), 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 하는 매개모형에서 사회적 배제 경험이 전위된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사회적지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수준을 기준으로 저집단(M-1SD),

표 5.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및 사회적지지 수준에 따른 사회적 배제 경험과 전위된 공격성 간 관계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경로		β	SE	t	p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 스트레스)					
상수		2.94	.02	139.27	.000
사회적 배제	→ 스트레스	.27	.03	8.28	.000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 전위된 공격성)					
상수		1.22	.27	4.58	.000
사회적 배제	→ 전위된 공격성	.31	.27	4.39	.000
스트레스	→ 전위된 공격성	.46	.09	5.13	.000
사회적지지	→ 전위된 공격성	.24	.05	5.05	.000
사회적 배제×사회적지지	→ 전위된 공격성	.19	.07	2.91	.004
상호작용에 따른 R^2 증가		R^2	F	p	
		.02	8.46	.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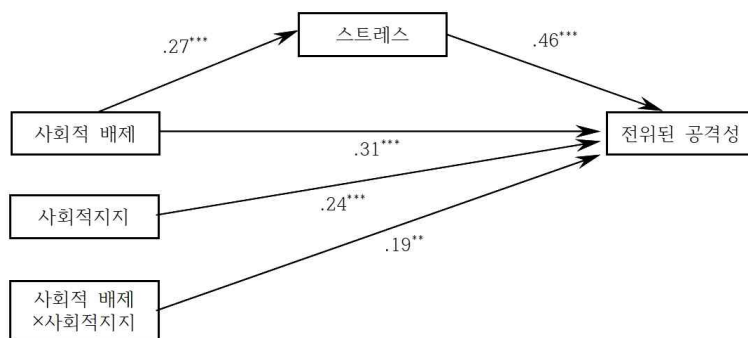


그림 4.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에 따른 조건부 직접효과 통계모형
 *** $p < .001$, ** $p < .01$

평균집단(mean), 고집단(M+1SD)으로 나누어 사회적 배제가 종속변인인 전위된 공격성에 미치는 조건부 직접효과의 크기와 신뢰구간을 확인한 결과, 사회적지지에 따른 사회적 배제 경험의 조건부 직접효과는 사회적지지의 값이 고집단과 평균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사회적지지가 평균이거나 높은 집단에서는 사회적 배제 경험이 높아질수록 전위된 공격성이 높아지지만, 사회적지지가 낮은 집단에서는 사회적 배제 경험이 증가해도 전위된 공격성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림 4 참조), 이는 앞서 확인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와 유사하다.

논 의

본 연구는 20~40대(만19세~49세) 남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과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변인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연구자들은 특히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그리고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후,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가설 3)하고자 하였으나 조건부 직접효과만 확인되어 예상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얻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 배제 경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전위된 공격성 간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먼저 사회적 배제 경험과 전위된 공격성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적 배제 경험과 스트레스도 정적 상관관

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와 전위된 공격성도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 반면, 사회적 배제 경험과 사회적지지는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관을 보였다. 이는 한 개인에게 있어 사회적 배제 경험이 많을수록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흡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사회적지지와 지각된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을 보였는데, 이는 사회적지지가 인간의 스트레스를 줄이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부정적 정서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완충효과를 만들어내고 나아가 개인의 적응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이영자, 1994; Cohen et al., 1985). 이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으나,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적지지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개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건부 직접효과 검증은 실시하였다. 사회적 배제 경험과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사회적 배제 경험과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는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배제 경험은 전위된 공격성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스트레스는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erkowitz(1989)의 인지-신연합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 즉, 한 개인은 혐오적 사건인 사회적 배제를 경험함으로써 심리적 불안정을 경험하게 되며, 이와 연합된 스트레스를 자동적으로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공격성이 발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때 분노 유발자가 부재하거나 직접적으로 화를 표출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공격성은 억제되며 후에 제3의 대상자에게 전위된 공격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감정 표현이 더 억제될 수밖에 없는 직장 상황에서도 괴롭힘 피해 경험의 전위된 공격성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조직불공정성 지각과 상태분노 등을 통해서만 발현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윤정민, 이승연, 2021).

다음으로 사회적 배제 경험과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예상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안적으로, 매개모형의 직접효과를 사회적지지가 조절하는 조건부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배제 경험이 전위된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사회적지지가 조절하는 결과를 확인했다. 즉, 사회적지지의 수준이 높을 경우 사회적 배제 경험이 전위된 공격성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배제 경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사회적지지가 증가할 때 전위된 공격성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향은 평균집단에서 고집단으로 갈수록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 배제 경험이 높을수록 전위된 공격성이 높아졌으며,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전위된 공격성 또한 더욱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은 사회적 배제경험의 수준에 관계 없이 가장 낮은 수준의 전위된 공격성을 보였다. 사람들이 자신과 친밀하다고 느껴지는 대상에게 전위된 공격성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Averill, 1983)를 고려하면,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즉 사회적 자원이 많은 사람이 사회적 허용 범위 내에서 전위적 공격성을 표출할 기회가 더 많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설에서 예상했

던 조절된 매개효과와 조건부 직접효과의 차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두 모형 모두 매개모형에서 특정 경로가 조절되는 경우이지만 조절된 매개효과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또는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즉 간접효과를 조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조건부 직접효과는 간접효과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매개모형 내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 즉 직접효과를 조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 이를 적용해 본다면, 사회적지지는 매개모형 내에서 매개변인인 스트레스를 경유하는 경로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변인인 사회적 배제와 종속변인인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만을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배제와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를 재확인하였다. 즉, 사회적으로 외면받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고, 자신의 좌절이나 분노와 무관한 제3 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심리적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의 전위된 공격성은 일상적인 부정적 감정의 표출 방식 중 하나로, 본 연구에서 원래 관심이 있었던 문지마 범죄의 한 유형인 불만 및 분노형(윤정숙 등, 2014)과 같은 분노 표출적인 강력범죄 행위를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위된 공격성 척도가 병리적인 행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적 반응의 수준에서 전위된 공격성을 측정하고 있다는 측면도 이러한 추론을 가능케 한다. 결국 사회적 배제 경험에도 불구하고 평소 전위된 공격성을 사용할 대상조차 없는 사람들이 분노를 축적한 끝에 문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때의 문지마 범죄 역시 제3자에게

전가된 전위된 공격성임에 분명하지만 일상적인 전위된 공격성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할 것이다.

둘째, 전위된 공격성과 사회적지지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역할 확인을 통해 기존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지지는 직접 공격성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지지체계가 많아질수록 역기능적 표현 방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가 오히려 전위된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적지지가 높은 집단일수록 '호가호위(狐假虎威)'하며 자신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전위 공격성을 사용하거나 사회적지지의 제공자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유형을 불문하고 공격성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분위기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어떤 측면에서 사회적지지는 불가피하게 좌절과 분노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전략 자산의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사회적지지 수준이 낮은 집단은 전위 공격성조차 사용할 기회가 적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결과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사회적지지가 낮은 집단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상황에서도 전위된 공격성을 사용하지 않고 성숙한 대응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전위된 공격성이 아닌 직접 공격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어떤 해석도 확증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고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집단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은 평소 직접

적 공격성을 사용하지 못하고 분노를 축적할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은 자신과 친밀하다고 느껴지는 상대에게 전위된 공격성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Averill, 1983)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관계망이 결여된 사람에게는 평소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기회도 부족한 것은 물론, 사회적지지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조언을 얻는 등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Antonucci, 1985) 역시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전위적 공격성이라는 해소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한 결과, 사회적지지의 역할이 유의미하지만 제한적이었으며 특히, 사회적지지가 부족한 집단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함에도 전위된 공격성을 사용할 기회가 적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 경험에 따른 반응 중 전위된 공격성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혐오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두 가지 정서적 반응 중 두려움과 관련된 도주(flight) 경향이 부정적인 정서를 일단 억제하고 회피한다는 점에서 전위된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Denson et al., 2006)에 미루어 볼 때, 공격성과 관련된 투쟁(fight) 경향인 직접 공격성과의 비교를 통해 실제로 전위된 공격성이 높은 집단이 도주의 경향이 높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직접적 공격성과 전위된 공격성의 비교를 통해 좀 더 포괄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전위 공격성은 일반인들에게 평소 억제된 공격성을 제3의 대상에게 해소하는 전략으로

보이며, 이를 묻지마 범죄자들의 범죄방식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묻지마 범죄자들은 평소 이러한 일반적인 전위된 공격성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거나 전위된 공격성 사용에도 불구하고 분노 해소가 되지 않고 누적된 끝에 과도하고 폭발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묻지마 범죄를 전위된 공격성의 관점에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아닌 실제 묻지마 범죄 사례를 분석하는 질적 연구를 통해서 자기조절능력을 상실한 심각한 수준의 전위된 공격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선영 (2012). 이상동기범죄자의 성향 및 특성 프로파일링-불특정 대상: 무차별 상해 사건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11(4), 3-28.
- 김진혁 (2012). 묻지마 범죄의 유형 및 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8(3), 113-131.
- 나란볼락, 유금란 (2021).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이주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27(1), 35-49.
- 대검찰청 (2015). 묻지마 범죄 분석 및 대책: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검찰청.
- 박경화 (1991). 한국인의 자아방어기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서승연, 이영호 (2007).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몰두 성향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2), 391-405.
- 신준섭, 이영분 (1999).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7, 241- 269.
- 엄지원 (2013. 01. 07). 범인은 '괴물' 아니었지만... 20명 중 1명만 "친한 친구 있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8520.html.
- 윤정민, 이승연 (2021). 20, 30대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경험과 전위된 공격성 간의 관계: 지각된 조직불공정성과 상태분노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27(1), 1-18.
- 윤정숙, 김민지 (2013).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심리적 이해. 한국범죄심리연구, 9(1), 147-174.
- 윤정숙, 박지선, 안성훈, 김민정 (2014).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이병관, 윤태웅, 노환호, 임혜빈 (2019). 한국형 사회적 배제 경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0(1), 127-152.
- 이수정, 이현성, 이정현 (2013).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심리학적 하위유형 연구. 보호관찰, 13(3), 136-186.
- 이영자 (1994).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하, 신철민, 고영훈, 임재형, 조숙행, 김승현, 정인과, 한창수 (2012). 한글판 스트레스 자각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정신신체의학, 20(2), 127-134.

- 이하나 (2009). 전위된 공격성 집단의 특성에 관한 탐색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광현, 신나영, 성현준, 신진주, 이수정 (2020). 사회적 배제 경험, 우울 수준, 지능이 소년월생의 편집성 성격 특성에 미치는 영향. *교정담론*, 14(3), 177-204.
- Antonucci, T. C. (1985). Person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and social behavior, In R. H. Binstock & E.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2nd ed)*.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pp. 94-128.
- Averill, J. R.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38(11), 1145-1160.
- Ayduk, Ö., Gyurak, A., & Luerssen, A.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rejection-aggression link in the hot sauce paradigm: The case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3), 775-782.
- Baumeister, R. F., Brewer, L. E., Tice, D. M., & Twenge, J. M. (2007). Thwarting the need to belong: Understanding the interpersonal and inner effects of social exclusio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1), 506-520.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Baumeister, R. F., & Tice, D. M. (1990). Anxiety and social exclus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2), 165-195.
- Benhorin, S., & McMahon, S. D. (2008). Exposure to violence and aggression: Protective roles of social support among urban African American yout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6(6), 723-743.
- Berkowitz, L. (1989).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1), 59-73.
- Bushman, B. J., Baumeister, R. F., & Phillips, C. M. (2001). Do people aggress to improve their mood? Catharsis beliefs, affect regulation opportunity, and aggressive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1), 17-32.
- Bushman, B. J., Bonacci, A. M., Pedersen, W. C., Vasquez, E. A., & Miller, N. (2005) Chewing on it and chew you up: Effects of rumination on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6), 969-983.
- Byrne, D., (1999). *Social exclusion*, Bu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Cohen, S., & He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Denson, T. F. (2008). Displaced agg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S. Y. Bhawe & S. Saini (Eds.), *Anger-hostility-aggression syndrome and cardiovascular diseases*. New Delhi: Anamaya Publications, pp. 43-54.
- Denson, T. F. (2009). Angry rumination and the self-regulation of aggression. *Psychology*

- of Self-Regulation: Cognitive, Affective, and Motivational Processes*, 11, 233-248.
- Denson, T. F., Capper, M. M., Oaten, M., Friese, M., & Schofield, T. P. (2011). Self-control training decreases aggression in response to provocation in aggressive individua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5(2), 252-256.
- Denson, T. F., Pedersen, W. C., & Miller, N. (2006). The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6), 1032-1051.
- Dewall, C. N., MacDonald, G., Webster, G. D., Masten, C., Baumeister, R. F., Powell, C. (2010). Acetaminophen reduces social pain: Behavioral and neural evidence. *Psychological Science*, 21(7), 931-937.
- Dewall, C. N., & Richman, S. B. (2011). Social exclusion and the desire to reconnect.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5(11), 919-932.
- Dewall, C. N., Twenge, J. M., Gitter, S. A., & Baumeister, R. F. (2009). It's the thought that counts: The role of hostile cognition in shaping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1), 45-59.
- Dewall, C., Twenge, J., Bushman, B., Im, C., & Williams, K. (2010). A little acceptance goes a long way: Applying social impact theory to the rejection-aggression.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2), 168-174.
- Dollard, J., Doob, L. W., Miller, N. E., Mowrer, O. H., & Sears, R. R.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Freud, S. (1961). *The complete psychology works of Sigmund Freud*. Hogarth.
- Gardner, W. L., Pickett, C. L., & Brewer, M. B. (2000). Social exclusion and selective memory: How the need to belong influences memory for social ev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4), 486-496.
- Gilman, R., Carter-Sowell, A., Dewall, C. N., Adams, R. E., & Carboni, I. (2013). Validation of the ostracism experience scale for adolesc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25(2), 319-330.
- Hamama, L., & Ronen-Shenhav, A. (2012). Self-control, social support, and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in divorced and two-parent famili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5), 1042-1049.
- Hartgerink, C. H., Van Beest, I., Wicherts, J. M., & Williams, K. D. (2015). The ordinal effects of ostracism: A meta-analysis of 120 cyberball studies. *PLoS one*, 10(5), e0127002.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Maner, J. K., Dewall, C. N., Baumeister, R. F., & Schaller, M. (2007). Does social exclusion motivate interpersonal reconnection? Resolving the porcupine probl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 42-55.
- Mattews, L. K. (2016). *The impact of trait displaced aggression and social support on cardiovascular reactivity*. California State University.
- Miller, N. E., (1941). The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Psychological Review*, 48(4), 337-342.
- Miller, N., Pedersen, W. C., Earlywine, M., & Pollock, V. E. (2003). A Theoretical model of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Review*, 7(1), 75-97.
- Nezlek, J. B., Wesselmann, E. D., Wheeler, L., & Williams, K. D. (2012). Ostracism in everyday life.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6(2), 91-104.
- Pedersen, W. C. (2006). The impact of Attributional Processes on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Motivation and Emotion*, 30(1), 75-86.
- Pedersen, W. C., Bushman, B. J., Vasquez, E. A., & Miller, M. (2008). Kicking the (Barking) dog effect: The moderating role of target attributes on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10), 1382-1395.
- Pickett, C. L., Gardner, W. L., & Knowles, M. (2004). Getting a cue: The need to belong and enhanced sensitivity to social c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9), 1095-1107.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Sarason, I. G., Levine, H. M., Basham R. B., Basham, B. R., & Sarason B. R. (1983). Assessing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27-139.
- Shi, B. (2021). Perceived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depression and stress in college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9(1), 1-9.
- Spiller, S. A., Fitzsimons, G. J., Lynch Jr, J. G. & McClelland, G. H. (2013). Spotlights, floodlights, and the magic number zero: Simple effects tests in moderated regress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50(2), 277-288.
- Twenge, J. M., Baumeister, R. F., Tice, D. M., & Stucke, T. S. (2001). If you can't join them, beat them: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058-1069.
- Vaillant, G. E. (1986). *Empirical studies of ego mechanisms of defense*. American Psychiatric Press.
- Williams, K. D. (2001). *Ostracism: The Power of Silence*, Guilford. Press
- Williams, K. D. (2007). Ostracism: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425-452.
- Wright, M. F., & Wachs, S. (2019). Does social suppor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acial discrimination and aggression among Latinx adolesc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73, 85-94.
- Zadro, L., Williams, K. D., & Richardson, R. (2004). How low can you go? Ostracism by a computer is sufficient to lower self-reported levels of belonging, control, self-esteem, and meaningful existe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4), 560-567.
- Zimet, G., Dahlem, N., Zimet, S., & Farley, G.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논문 투고일 : 2023. 07. 26

1 차 심사일 : 2023. 08. 06

게재 확정일 : 2023. 10. 05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Displaced Aggression: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and Conditional Direct Effect of Social Support

Yoonjae Noh

Supreme Prosecution Service
Forensic Science Division

Sangyeon Yo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motiveless crimes that mainly originated from interpersonal problems and were acts of revenge against innocent third parties. This study confirm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social exclusion and displaced aggression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We sought to confirm the role of related factors such as stress and social support. For this purpose, we established and tested hypotheses about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effect of social exclusion experience on displaced aggression among 353 adult males aged between 19 and 49 years. The main results are that, first, social exclusion had a positive effect on displaced aggression. Second, stress was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clusion and displaced aggression. Third, the hypothesis that social support would moderate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was not proved, but the conditional direct effect of social support was confirmed in the mediation model. In other words, social support did not affect the indirect effect mediated by stress, but appeared to moderate the direct effect between social exclusion and displaced aggression. Social exclusion's prediction of displaced aggression was significant only in the average social support group (mean) and the high group ($M+1SD$), and appeared to increase as the group increased. This means that in groups with high social support, displaced aggression is used as a stress control strategy, which is a different result from previous studies that found that social support plays a role in lowering aggression. People with low levels of social support showed unexpected results in that they used displaced aggression less frequently despite their experiencing of social exclusion. In the discussion, the social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interpreted, and additional research ideas were proposed to spec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clusion and displaced aggression.

Key words : social exclusion, displaced aggression, stress, social support, conditional direct effect